

‘대학생 다단계 피해 막기’ 공정위가 나섰다

광주사무소, 전남대 등서 상담·홍보 활동 25일부터 목포대·순천대 등 전남 순회도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5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 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공정위 광주사무소 제공)

취업준비생인 A(27)씨는 지난해 서울에 있는 친구 B로부터 대기업에 자리가 있다는 소리에 이력서를 넣었다가 700만원의 금전적 손실과 함께 친구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정신적 피해까지 당했다. 친구 B씨는 합격 통지서와 함께 1주일 연수를 받기 위해서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했다. 친구 B씨는 부모님께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방을 얻어야 하니 전세금 1000만원을 보내 달라”고 방법까지 알려줬다. 이렇게 돈을 구한 A씨는 결국 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해 판매에 나섰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만 보고 그만두어야 했다. 최근 일자리 부족과 취업난을 악용해 대학생들을 이른바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불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소장 권영아·이하 공정위 광주

사무소)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5일 전남대를 시작으로 3월 한 달간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불법다단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공정위 전문가와 한국소비자원 상담원들이 대학을 찾아 대학생들을 일대일 상담하고 피해 예방 안내 리플릿 배포, 포스터 부착 등 홍보활동을 펼친다.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입학철을 맞아 취업이나 단기간 고수의 보장, 학자금 대출 앞선, 병역특례 취업 등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속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업자들의 다단계판매원 가입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등록 업체 여부 확인 ▲상품구매시 ‘공제번호표지서’를 수령해 보관 ▲반쯤 청구가 가능한 기간 및 반품 청구 방법을 숙지한다 등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광주사무소 이용만 과장은

“불법 다단계업체의 대학생 소비자 유인 수법과 행태, 피해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구체적인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해 대학생들이 학업 중단, 신용불량자로 등재 등으로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 광주사무소는 오는 25일부터 목포대, 동신대, 순천대 등의

일정으로 전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와 소비자단체 등에 직접 찾거나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불법다단계 피해를 상담한 건수가 2011년 80여건에서 지난해 120여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

불법 다단계 피해 줄이려면

상품 구입 2주 이내면 환불 가능 환불 거절땀 조합에 공제금 신청

극성을 부리는 불법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다단계로 의심이 가는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피해 발생 때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 불법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한 6대 수칙을 마련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때 상담과 신고를 위한 기관을 홍보하고 있다. 제시된 수칙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에 무조건 가입을 하지 않는 것. 업체가 사·도 등 특권 합법적 업체라고 유혹한다면 공정위나 사·도 공제조합 등 관계 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업체에 가입했거나 상품을 구매했다면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표지서’를 수령해 보관해야 한다. 공제번호표지서가 있어야 다단계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

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할 경우를 대비해 구입상품 취급요령을 숙지하고 반품 청구가 가능한 기간 및 반품 청구 방법을 숙지하는 것을 잊어서 안 된다. 법률적으로는 업자로부터 상품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환불받을 수 있다. 또 본의 아니게 불법 피라미드 및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했다라도 본인의 상황 능력을 초과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 부득이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정거래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지방사무소(광주 975-6818)에 유·무선으로 상담하거나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와 각 지역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신고해야 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학생 어학교재 피해 2년새 55% 늘어

신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들이 영어 잡지나 어학교재를 샀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영어 잡지·어학교재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11년 87건에서 2012년 135건으로 55%나 늘었다. 2년간 접수된 피해 사례 222건 중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요구 거절이 42.3%(94건)로 가장 많았다. 또 전체 피해의 43.2%(96건)가 신학기 초기인 2~4월에 집중돼 이 기간 신입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미성년자 피해 94건 가운데 37.2%(35건)는 학교 강의실이나 주변에서 어학교재 견본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에 넘어가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가

잡으로 교재를 배송받아 피해를 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면서 “19세 대학생은 책 구매 때 신중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순우 행정(맨 왼쪽)이 5일 광주시 북구 본촌동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중소기업 CEO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중소기업 어려움 함께 합니다”

이순우 우리은행장 기업인 간담회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5일 중소기업 경기 체감과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호남 지역 ‘희망 징검다리’ 투어에 나섰다. 이순우 행장은 이날 광주 지역 하남산단과 평동산단을 방문하고 광주테크노파크에서 15개 중소기업의 CEO와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등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투어에는 이의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

해 장덕복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 정상봉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등도 함께 자리해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토론했다는 자리가 됐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달 18일 남동공단을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7개 권역(인천·경기, 서울, 호남, 부산·경남, 충청, 강원, 대구·경북) 산단 지식센터를 돌아보며 ‘희망 징검다리’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지역기업 자금사정 호전

3월 경기지수 전월보다 8포인트 상승

3월 중 광주·전남 기업자금 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3월 광주·전남지역 기업자금사정 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3으로 전월보다 8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은 83으로 9포인트, 비제조업은 83으로 7포인트가 각각 올랐다.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 수가 같음을 의미한다. 100 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업체 업체수가 부정

업체 수보다 많음을, 10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낸다. 지난달 지역 기업자금사정BSI는 84로 전월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이 85로 6포인트, 비제조업은 83으로 4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자금수요BSI는 101로 전월 대비 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101로 전월과 동일, 비제조업은 102로 13포인트 떨어졌다. 자금조달BSI는 92로 전월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농어촌소, 공사현장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형운)는 5일 올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에 따라 부실시공 예방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공사현장 기동점검반’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사설계, 품질, 지질, 건축 등 10개 분야에서 박사, 기술사, 건설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경험을 축적한 전문인력 33명으로 구성된 공사현장 기동점검반이 연중 228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할 계획이다. 전남본부는 지난해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건설공사’ 분야에 공사 내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대성기자 bigkim@

체크카드 오래 쓰면 신용등급 올라

체크카드를 상당 기간 일정규모 이상 사용한 고객은 신용평가 시 가점을 받아 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 신용정보의 활용도와 정확성, 최신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체크카드 사용실적은 개인신용평가상 우량정보로 반영한다. 최근 3개월 연속으로 1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는 신용평가 시 가점을 주는 식이다. 당국은 체크카드 이용고객 약 2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을 성실히 갚았을 때도 가점이 주어진다. 성실상환자의 신용등급을 높여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을 키우려는 조처다.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 등록 시 전체 금융회사 4500여개를 대상으로 전산을 대조해야 한다. 현재는 연간 130여개 기관을 상대로 서면조사만 하고 있다. 전산대조 대상 범위도 신용카드 개설정보 등 한정된 정보에서 모든 신용정보로 확대한다. /연합뉴스

光銀 ‘두근두근, 새출발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4월 30일까지 2개월간 2013년 중 취업한 신입직원, 신규창업자, 대학(원)신입생을 대상으로 ‘두근두근, 새출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이벤트는 대상 고객이 지급결제계좌(대학교 신입생은 U-free통장, 신입직원은 급여통장, 신규 창업자는 가맹점이체통장, 예적금과 펀드 및 대출상품,신용카드(체크카드), 전

자금융(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킹) 등 4가지 상품군에서 3가지 이상의 상품을 이용중이거나 신규 가입하면 광주은행 홈페이지와 영업점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응모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1등 1명 LG램북(Z300), 2등 2명 갤럭시노트, 3등 20명 5만원권 기프트카드, 행운상 100명에게는 USB(16G)를 제공한다. /최재호기자 lion@

2013 Gunsan Saemangeum International Marathon

군산새만금국제 마라톤 대회

일시 : 2013. 4. 28(일) 08:00
 장소 : 군산월명종합경기장

국제공인대회 : Full, 10km, 5km
 International Certified Marathon Race
 Full, 10km, 5km

참가신청기간 : 2013. 2. 1 ~ 3. 29 (57일간)

- 신청방법 : 인터넷 www.smgmara.com, www.smgmara.org
- 문의전화 : (063) 452-7731